

##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관한 연구

전 옥 실\* · 이 영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bout Singlehood

Chun, Og-Sil\* · Yi, Yeong-Sug\*\*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 Lecturer\**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 Prof.\*\**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bout singleho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13 students living in Chonbuk province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y distributions, Cronbach's  $\alpha$ ,  $\chi^2$  test, and t-test were conducted by spss/pc+.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perceived age of single man was from 32.6 years and that of single woman from 30.1 years. (2) The reasons for singlehood that adolescents perceived were 'free life', 'loss of interest in marriage', and 'unhappy marriage of parent', etc. (3) Adolescents had a negative opinion on singlehood. More than 50% of adolescents perceived that single woman was more appropriate for singlehood.

#### I. 서 론

전통 사회에서 결혼은 필수적으로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나 산업화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게 되었다. 독신은 이러한 개인의 성취욕구 및 개별적인 자유를 누리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한 결과 나온 생활유형이다. 실제로 산업화, 도시화를 결혼연령과 관련시켜볼 때

도시화가 증가될수록 미혼율이 증가하여(박경애, 1993) 미국 사회에서 지난 1940년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8% 미만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무려 2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 5. 16)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도 유입되어 종래와는 달리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여(김경신·이선미, 1998) 혼인하

려고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최순, 1983). 실제로 결혼적령기의 미혼 비율의 예를 25세 여성으로 들어보면 1975년 22.5%이던 것이 1995년 52.5%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며,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게 될 비율을 의미(최순, 1983)하는 45-49세의 미혼율도 1975년의 0.2%에서 1995년에는 1.2%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

그런데 독신의 증가는 독신자 본인을 포함하여 독신을 경험하는 모든 이의 적응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더구나 아직까지 독신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정상적 가족생활이라고 여겨질 만큼 보편적이지 못하여 일반인의 독신에 대한 시각은 올바르기보다는 대체로 과장되어있으며, 편견적이며, 비하적인 경향이다(박경란 등, 2001). 독신에 대해 만연되어있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는 독신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적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에서 독신은 결혼의 대안으로서가 아니고 하나의 생활유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므로 독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자기 존재와 능력을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발달 과정을 겪는 시기이다(Gecas & Seff, 1990). 더구나 오늘날의 청소년은 복잡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넓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여야하는 세대이므로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독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까지는 흥미 위주의 관심에 머무르는 정도로 극히 저조하여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시각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밝혀 이 시대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독신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시각은 결혼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들의 결혼관 정립에 유용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독신의 나이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은 어떠한가?
2. 독신선택 이유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은 어떠한가?
3. 성별 독신의 적합성 및 선호도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독신의 개념

독신의 사전적 개념은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뜻으로 구분된다(이희승, 1989). 여기에서 다루고자하는 독신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never-married, unmarried)이며, 또 하나는 결혼을 한 경험이 있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 어떤 이유이건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singlehood, single)이다(옥귀주, 1999). 즉 넓은 의미로서의 독신이란 미혼이나 이혼, 사별, 혹은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정현숙 등, 1998)를 의미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서의 독신은 미혼 독신자라고 하여 결혼 적령기가 지났으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김애순, 1994)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기준과 사실적 혼인 관계까지를 포함해서 결혼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미혼 남성과 여성을 독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독신에 대한 시각

#### 1) 독신의 나이

몇 세부터를 독신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독신이라고 간주하는 나이는 사회의 관념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김애순(1994)은 독신의 분기점이 되는 나이를 35세로 보았고, 미혼 독신자의 생활실태에 관해 고찰한 옥귀주(1999)는 미혼 독신 남성은 32.91세, 미혼 독신 여성은 29.77세를 중심으로 하여, 남성은 32.91세부터 34.91세 미만을, 여성은 29.77세부터 31.77세 미만을 독신 초기로 정의하고 같은 방식으로 남성은 34.91세 이상, 여성은 31.77세 이상의 연령을 독신 후기로 정의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독신의 나이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노총각, 노처녀의 나이를 32.5세와 29.2세 이상이라고 지칭한 자료(조선일보, 1997. 11. 11)는 우리 사회에서 독신으로 여기는 나이의 기준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 2) 독신 선택의 이유

독신이 되는 전제 조건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심리적 독립, 그리고 독신으로 남으려는 분명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독신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독신 생활에 대한 보상이 결혼에 대한 보상보다 더 크거나, 독신생활에서 인식된 비용이 결혼 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canzonei & Scanzonei, 1981).

일반적으로 독신은 직업의 기회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으며 거주 이동의 자유, 생활의 자율성, 다양한 경험의 가능성, 다양한 친구 및 사회관계의 유지, 자신 한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갖는 등의 이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박경란 등, 2001). 따라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독신생활의 편리한 점으로 행동·생활의 자유, 직장 및 사회생활의 자율성, 폭넓은 이성교제, 그리고 경제적 책임이 없다는 점(조애저·공세권, 1992)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언론기관(한겨레21, 1995)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신이 결혼보다 좋은 점에 대하여 생활의 자율성이라는 응답이 51.9%,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직업적 성공과 자아개발의 기회가 많다는 응답이 36.2%, 폭넓은 이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반응이 11.9%로 나타나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를 시사해주고 있다.

미혼 독신자 생활실태 조사(옥귀주, 1999)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독신 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독신 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심리적 배경 요인을 남녀교제의 기회 부족과 일·학업·가족 부담 등의 이유로 혼기를 놓쳐 결혼할 기회를 놓친 경우 등 환경적 요인,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 및 결혼 상대방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혹은 실연이나 혼전 성 관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상처 등 개인적 요인, 이성에 대한 불신감과 적개심이나 이성이나 결혼에 대한 흥미 부족이나 무가치감 또는 연애나 부부 생활 및 결혼 후 가정과 자녀 양육에 책임감과 중압감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 일과 직업적 자아 성취에 대한 몰두와 가치 부여 또는 종교적 문제 등 결혼 이외의 것에 대한 가치 부여, 기타 이성 동료에 대한 경쟁 의식이

나 지나친 자존심과 높은 배우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3) 독신의 적합성

일반적으로 결혼은 남성에게는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좌절, 불만족, 부정적인 감정, 불행, 기타 문제 등 부정적으로 경험되는 경향이다(Bernard, 1982). 그러므로 남성에게 결혼을 할 때는 직업을 포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은 일상의 빨래, 식사, 정돈 등의 자질구레한 일들과 걱정을 경감시켜 주고, 중요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직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Macklin, 1980). 이와 같이 결혼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독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독신생활에서의 성별 차이는 결혼에서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독신남성들은 독신 여성들에 비해 우울, 신경증상, 두려움, 그리고 정신건강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Stein, 1988)을 보면 독신남성의 생활이 독신 여성의 생활보다 더 어려워리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독신생활에 여성이 유리하다는 이러한 주장은 실제 조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미혼 독신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옥귀주, 1999)에서 남성과 여성 중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더 힘든지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라는 응답이 39%인데 반해 '여성'이라는 응답은 11.6%로 독신남성이 독신여성보다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독신남성이 독신생활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남성이 독신에 더 적합하다는 견해에서는 남성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을 들어 주장한다. 반면에 여성들이 혼자 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이것은 독신이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인식 때문이다(김용재, 1995). 또한 남성들은 독신을 선택하는 반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되는 비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사회적인 메시지(Schwartzberg, Berliner & Jacob, 1995)도 독신여성들을 위축시킨다.

한편, 결혼의 필요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 분		대상자(N)	백분율 (%)
성	남학생	284	46.3
	여학생	329	53.7
연 령	중학생	288	47.0
	고등학생	325	53.0
종 교	기독교	313	51.1
	천주교	43	7.0
	불교	58	9.5
	기타	11	1.8
	없음	188	30.6
소득 수준	400만원 이상	36	5.9
	400-200만원	143	23.3
	200-100만원	319	52.0
	100만원 이하	98	16.0
	무 응답	17	2.8
계		613	100.0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독신에 대한 견해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미혼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분석한 결과(안해옥, 1987), 고학년일수록 결혼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저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신에 관한 의식 조사(조선일보, 1997. 11. 11)에서도 '결혼은 해야 된다'는 반응이 20-24세는 33%, 25-29세는 54%, 30-34세는 64%로 나타나 남녀 구분 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의 필요성이 성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직장인 설문조사(조선일보, 1997. 11. 11)에 의하면 '결혼은 해야 된다'는 질문에 남성의 62%, 여성의 3%가 반응을 보인 반면에 '결혼은 선택'이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38%, 여성의 70%가 반응을 보여 남성과 여성이 결혼에 대한 지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성차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대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남녀가 다르게 지각함을 보여주었다(양명숙, 1996). 결혼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른 것 외에도 사회적인 기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k시에 있는 청소년기 중 초기인 중학교 1학년과 후기인 고등학교 2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2. 측정 도구 및 절차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독신 선택의 이유(12 문항)와 독신에 대한 적합성의 남녀 차이(3 문항)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5점 likert척도로 작성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문항의 타당도는 전문가와 대학원생 4명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독신 선택의 이유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Cronbach's  $\alpha = .73$ ). 독신 나이에 대한 지각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주관적 질문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중, 고등학생 한 학급씩(합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검토하고 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교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기재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는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3. 자료 분석

회수된 응답지 630부 중 부실한 것을 제외한 613부를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독신에 대한 지각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고,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독신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 검정,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독신의 나이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청소년의 독신 나이에 대한 지각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은 독신 남성은 32.6세부터, 독신 여성은 30.1세부터를 독신으로 지각함으로써 독신남성의 나이를 독신여성의 나이보다 2.5세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독신남성의 나이를 32.91세, 독신여성의 나이를 29.77세로 정의한 옥귀주(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독신의 나이에 대하여 독신남성을 독신여성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은 한국인의 1999년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은 29.1세이며, 여성은 26.3세로 나타난 것(통계청, 2000)과 같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상이기 때문이다. 또 여성이 결혼하는 나이는 출산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독신여성의 나이를 독신남성의 나이보다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독신 나이에 대한 지각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독신남성의 나이를 남학생은 32.3세부터, 여학생은 32.9세부터로 지각하고 있으며, 독신여성의 나이를 남학생은 29.7세부터, 여학생은

30.5세부터로 지각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독신의 나이를 많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독신의 나이를 많게 지각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독신남성의 나이를 독신여성의 나이 보다 많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신의 나이를 더 많은 나이로 지각하는 것은 결혼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결혼은 남성에게는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부정적으로 경험되며(Bernard, 1982) 또한 여성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남성보다 결혼시기를 늦추어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독신 나이에 대한 지각을 연령별로 살펴 본 결과, 독신남성의 나이를 중학생은 31.5세부터, 고등학생은 33.5세부터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독신여성의 나이는 중학생이 29.4세부터, 고등학생은 30.7세부터라고 지각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독신의 나이를 많게 지각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독신남성의 나이를 독신여성의 나이보다 많게 지각하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독신의 나이를 많게 지각하는 것은 자신의 나이에 비추어 독신의 나이도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독신 선택 이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청소년은 독신선택의 이유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청소년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이성이나 결혼에 대한 흥미상실',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신체적 결함',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직업·학업에 몰두하기'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지적된 독신 선택 이유였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라는

<표 2> 청소년의 성, 연령에 따른 독신 나이에 대한 지각

(세)

독신나이	성			연 령		
	남학생	여학생	t	중1	고2	t
독신남성	32.3	32.9	-1.68	31.5	33.5	-5.38***
독신여성	29.7	30.5	-2.44*	29.4	30.7	-3.74***
t	21.51***	19.99***		15.72***	26.75***	

\* p<.05 \*\*\* p<.001

〈표 3〉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독신 이유의 지각

독신 선택의 이유	평균	성		t	연령		
		남학생	여학생		중1	고2	t
자유로운 생활	3.53	3.11	3.89	-7.23***	3.17	3.84	-6.25***
신체적 결합	3.41	3.11	3.29	-1.80	3.01	3.38	-3.66***
이성·결혼에 흥미상실	3.21	3.03	3.74	-6.98***	3.06	3.73	-6.53***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3.21	2.95	3.34	-3.82***	2.87	3.42	-5.38***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3.16	2.90	3.48	-5.58***	3.06	3.34	-2.66**
실연이나 혼전 성 경험	3.05	2.80	3.17	-3.40***	2.98	3.02	-0.35
직업·학업에 몰두하기	3.00	2.58	3.45	-8.60***	2.89	3.18	-2.76**
자녀양육 가족부담감	2.50	2.41	2.58	-1.66	2.27	2.70	-4.21***
기혼자와의 사랑	2.38	2.27	2.47	-2.07*	2.30	2.44	-1.42
남녀교제부족	2.22	2.10	2.32	-2.38*	2.24	2.20	0.35
결혼 비용 없음	2.02	2.04	2.01	0.33	1.92	2.11	-2.25*
신앙생활	1.99	1.92	2.05	-1.21	1.90	2.07	-1.66

\* p&lt;.05 \*\*p&lt;.01 \*\*\* p&lt;.001

이유를 밝힌 김미숙(1987), 홍지연(1988)의 연구 및 자아실현성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김현아·서병숙(1985)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직장을 가지려는 기호가 결혼의 이점을 감소시킨다는 이인수(1993)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이성이나 결혼에 흥미 상실', '신체적 결합', '결혼 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등의 독신 선택 이유는 우선 순위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옥귀주(1999)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청소년이 지각한 독신 선택이유를 자발적 독신의 경우와 비자발적 독신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자유로운 생활', '직업·학업에 몰두하기 위함', '신앙생활' 등의 이유는 자발적 독신의 이유이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독신의 이유들이다. '자유로운 생활' 때문에 독신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긴 하지만 비자발적 독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자발적 독신의 이유보다 많은 것으로 청소년들이 독신을 지각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독신을 보는 시각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된 경우가 많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이 청소년이 독신의 이유라고 지각한다는 결과는 앞으로 이 분야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말해 주고 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단지 부모 자신의 불행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인 결합이나 결혼비용 등의 이유로 독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은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결혼하기가 어려워 독신 생활을 해야만 한다

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나타내 준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청소년의 시각이 이후 우리 사회의 결혼 경향을 예견해주는 것으로 사료되어이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

독신 선택의 이유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에 가장 높게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높게 동의한 이유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신체적 결합', '이성이나 결혼에 흥미 상실',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생활' 순서로 지적하였지만, 여학생은 '이성이나 결혼에 흥미상실',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생활', '직업이나 학업에 몰두하기',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등의 순서로 지적하였다.

독신선택의 이유 중 '자유로운 생활'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유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동의하였다. 이 중 '자유로운 생활'과 '직업·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게 지각하고있는데, 이는 결혼한 이후의 생활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학생은 결혼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에 어렵도록 만든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이다. 즉 아직까지도 결혼이 여성에게는 남성만큼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에서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미혼여성의 49.5%가 결혼보다는 직장을 우선시하여 '결혼이나 육아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과는 같

〈표 4〉 독신생활의 적합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남성	여성	몰다 똑같다	잘 모르겠다
%(N)	17.8(109)	50.8(310)	20.6(126)	10.8(66)

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경향신문, 1999. 7. 2). 또한 직업에 대한 관심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남자에게보다는 여자에게 더 일반적인 것(Bowman, 1976)과 일맥상통한다.

'실연이나 혼전 성 경험'의 이유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의 실연이나 혼전 성 경험은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반면에 남성의 실연이나 성 경험은 문제가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이나 '남녀교제 부족' 등의 이유도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독신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된 비자발적인 독신의 경우인데 남성들은 독신을 선택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비자발적으로 독신이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Schwartzberg 등, 1995)가 여학생들의 지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의 이유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지각한 이유인데, 이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정생활과 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신체적 결합' 등의 이유는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들은 남녀의 지각의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특히 '신체적 결합'은 두 번째로 높게 지각을 하는 이유지만 성 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신체적 결합이 그만큼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남녀 공통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 독신선택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유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게 동의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현실을 직시하여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이유를 중학생보다 더 많이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자유로운 생활', '이성이나 결혼에 흥미 상실',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등의 이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연이나 혼전 성경험', '기혼자와의 사랑', '남녀교제부족', '신앙생활' 등의 이유에서 연령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 3. 성별 독신의 적합성 및 선호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성별 독신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차이나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신생활의 적합성과 독신에 대한 선호도로 살펴보았다.

먼저 독신자로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적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독신생활을 하기에 남성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청소년의 17.8%, 여성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50.8%가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이 독신생활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옥귀주, 1999)와 동일하다. 이러한 반응은 남성은 주로 집밖의 일을 하며 여성은 주로 집안의 일을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오늘날 취업한 여성이 증가하였지만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은 흔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남성은 나이든 이후라도 얼마든지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나 독신여성들은 사회의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야만 하므로 독신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김용재, 1995)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독신 생활에 대한 지각은 가사담당 등 가정적 역할 수행을 사회적 편견 등 사회적인 시선보다 더 치중하여 지각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독신자로서의 적합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여성이 독신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여학생은 독신자 생활의 특성을 가정적 역할 수행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있기 때문인 것 같다. 독신자로서의 생활은 가정적 역할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여학생은 가사 담당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여성독신자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남학생이 남성독신자를 적합하다고 응답한 정도는 여학생이 남성독신자를 적합하다고 보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5〉 청소년의 성, 연령에 따른 독신생활의 적합성에 대한 지각

% (N)

	전체	성		t	연령		t
		남학생	여학생		중1	고2	
독신남성	2.46	2.26	2.62	-5.16***	2.45	2.46	-0.05
독신여성	2.70	2.23	3.11	-10.98***	2.59	2.80	-2.44*
t	-5.04***	0.70	-8.74***		-2.26*	-6.00***	

\*\*\* p&lt;.001

〈표 6〉 청소년의 성, 연령에 따른 독신자에 대한 선호도

	성		x <sup>2</sup>	연령		x <sup>2</sup>
	남학생	여학생		중1	고2	
여성	43.2(104)	67.8(206)		61.4(148)	53.3(162)	
남성	31.1( 75)	11.2( 34)	52.03***	19.5( 47)	20.4( 62)	19.31***
똑같다	25.7( 62)	21.0( 64)		19.1( 46)	26.3( 80)	

\* p&lt;.05 \*\*\* p&lt;.001

남학생은 독신자의 생활을 여학생과 달리 가정적 역할 수행보다 다른 측면을 강조하여 지각하고있거나 혹은 여학생과 동일하게 가정적 역할을 증시하여 생각하지만 양성성을 지향하는 남성이어서 남성도 여성처럼 가정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여성이 독신생활에 더 적합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할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 남은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생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독신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도 독신생활의 적합성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주었다.

청소년의 독신남성에 대한 적합성은 5점 만점에서 평균 2.46으로 독신남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평균 2.70으로 독신남성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정도가 적은 경향이어서 독신남성과 독신여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은 독신남성과 독신여성 어느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독신은 극히 일부 사람들만의 생활유형으로 정상적 가족생활이라고 여기지 않는 독신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성에 따른 독신에 대한 선호도는 남학생은 남성과 여성 구별하지 않고 독신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여학생은 독신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독신에 대한 선호도는 독신남성에 대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독신여성에 대하여는 독신 남성보다는 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는데 고등학생이 더욱 더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독신에 대해 청소년이 어떠한 지각을 가지며, 이러한 지각이 청소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3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전북 k시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은 독신의 나이를 독신남성 32.6세, 독신여성 30.1세부터라고 지각함으로써 독신남성의 나이를 독신여성의 나이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남·여학생 모두 독신남성의 나이를 독신여성의 나이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독신의 나이를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의 성, 연령에 관계없었으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강하였다.

셋째, 청소년은 여성이 남성보다 독신생활에 적합하다고 지각하였으며, 독신남성보다는 독신여성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독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은 독신남성보다 독신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독신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성차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사회변화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결혼에서 나타나는 남녀차이는 아직도 상당함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성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도는 독신남성과 독신여성 모두에게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의 견해는 사회가 독신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현대 사회에서 독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만을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독신을 비정상적인 삶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 독신은 삶의 한 방식일 뿐이므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은 독신을 다양한 생활유형의 하나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독신 생활을 특별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나 현행 교육의 내용을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독신에 대해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남학생과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과 중학생이 독신에 대해 더 부정적 지각을 보인다는 것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교육은 남학생을 포함하여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조사하는 횡단적 연구를 하였으므로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지각이 실제로 그들이 독신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할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독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각이 실제로 독신을 경험하게 될 경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독신이 증가되고있는 현실에서 독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지각을 연령과 성에 따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독신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독신에 대한 지각을 연구함으로써 독신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1999년 7월 2일
-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미숙(1987). 한국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연구(여고생과 여공간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고려원 미디어.
- 김용재(1995). 독신성인의 유형에 따른 교육적 필요에 대한 조사연구.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관·이영숙·전귀연(2001). 현대가족학. 학지사
- 박경애(1993). 성비가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7(2), 153~166.
- 안해옥(1987). 미혼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 광주직할시 의학계 미혼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 역할관에 대한 연구 : 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육귀주(1999). 미혼독신자의 생활 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1996). 미혼 남녀가 인식하는 부부관계 개념의 성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84~91.
- 이인수(1993).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시기연구 : 생애과정관점으로 본 결혼전이 시기 결정요인. 경희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1989).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 정현숙·최연실·유계숙(1998). *결혼학개론*. 새한정판사.
- 정현아·서병숙(1985).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03~104.
- 조규연(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1997년 11월 11일. 2000년 12월 28일. 2001년 5월 16일.
- 최순(1983). 한국인의 초혼연령 pattern 변동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6(1), 4~10.
- 조애저·공세권(1992). 최근 한국여성의 결혼행태. 1991 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0). *한국통계연감*.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 겨울호, 103-120.
- 홍지연(1988). 여고생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기독교계 학교와 비기독교계 학교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ard(1982). *The future of marriage*, Yale.
- Bowman(1976). *Marriage for moderns*. 정현아 (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rgan, L. & Melko, M.(1982). *Singles: Myths and realities*, Sage.
- Gecas, V. & Seff, M.A.(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41~958.
- Keith, P.M.(1986). Isolation of the unmarried in later life. *Family Relations* 35(3), 389~395.
- Macklin, E.D.(1980). Nontraditional family forms: A decade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905~917.
- Scanzoni, L.D. & Scanzoni, J.(1981). *Men, women, and change*, Black Dot, Inc.
- Schwartzberg, N., Berliner, K. & Jacob, D. (1995). *Single in a married world*, Haddon Craftsmen.
- Spreitzer, E. & Riley, L.E.(1974). Factors associated with single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3), 533~541.
- Stein, P.J.(1988).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In Wells, J. G.(ed.).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4th ed., 19-30), Macmillan.